

<거룩한 슬픔과 근심>

느헤미야 1:1-5 / 새찬송가 432 (통일 462)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1. 우리는 슬픔과 근심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시51:17).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마5:4),(눅6:25).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고후6:10). 이처럼 왜 성경은 슬픔과 근심을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2. 슬픔과 근심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에 따라서 부정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바람직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일로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속적인 슬픔이나 세속적인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전파, 교회부흥, 회개와 거듭남을 위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은 거룩한 슬픔과 근심이요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는 이런 거룩한 슬픔과 거룩한 근심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과 성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성벽재건을 위한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간 느헤미야는 모든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슬픔과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유다 공동체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3.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감정들 즉 분노나 슬픔이나 근심 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세속적인 기쁨이나 나의 평안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분노나 슬픔, 거룩한 근심이 없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에서 매매가 이뤄질 만큼 타락한 성전 모습에 거룩한 분노를 내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습니까? 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한 일에, 복음전파를 위한 일에 방해하는 사악한 세력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공사를 하러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산발랏과 도비야의 분노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세속적이고 사적인 분노였습니다(느2:10).

지금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분노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과 복음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분노합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슬퍼합니까? 세상에 속한 일로 슬퍼합니까 아니면 나의 나약한 의지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슬퍼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당신을 위해 울지 말고 거룩한 슬픔으로 울라고 하셨습니다(눅23:26-28).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근심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속적인 일로 근심합니까 아니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룩한 근심’을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 거룩한 분노와 근심과 슬픔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4.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나 진정한 위로의 축복은 역설적이게도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슬픔을 느끼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는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고후:10). 거룩한 슬픔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습니다(마5:4).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나에게 차고 넘쳐서 나를 넘어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능히 위로해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적용&실천>

나는 나를 위해 슬퍼하며 근심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뤄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또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슬퍼하며 근심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근심과 분노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